## 지역 소식통

### 제1기 정읍 시민정원사들 공공기관 조경수전지봉사

제1기 정읍 시민정원사들이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공공기관 화단 내 조경수 전지작업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9년에 시행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정읍 만들기에 동참한 첫 번째 봉사활동이다.

조경수 전지작업은 보건소 신청을 받아 관리가 미흡하고 예산 확보가 안된 읍면 보건지소 6개소(북면, 이평면, 덕천면, 태인면, 칠보면 보건지소, 복흥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형 소나무, 꽝꽝나무, 철쭉 등 조경수 머리 단장으로 환자들을 맞이할 깨끗하고 쾌적한 보건지소로 재탄생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정원사들이 녹색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정원사가 되어 향기도시 정읍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수소하우스 개소

부안군은 2일 옛 부안군수 관사(부안읍 남문안길 5-3)에서 수소하우스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하우스는 수소에너지 체험장으로 2200여권의 도서를 갖춘 북카페와 수소연료전지 관련 각종 전시물로 구성된 홍보관, 연료전지 온수 족욕장 등으로 조성됐으며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코의 건물용 고체산화물시스템(SOFC)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열, 온수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체감도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군수는 "수소하우스는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발전기 실증 및 수소 관련 전시물 등을 전시·홍보하는 곳으로 부안군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상하수도 요금 50%감면"

### 정읍시, 이달부터 3개월간 별도 신청 없이 혜택
### 코로나 확산 따른 지역주민 경제적 부담 최소화

정읍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공공급식 관련 농축산물 매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해 관련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도 마스크 구입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감면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고지분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수용가에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별도 신청 없이 약 43,000 수용가가 감면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매월 가정용 6억원, 일반용과 욕탕용 4억원, 산업용 3억원 등 13억원으로 3개월간 약 3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시는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요금 감면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에 최대 3개월간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지난달 29일 정읍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6월부터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읍시민들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면서 "부담을 함께 나누며 현재의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달 초부터 고창군청 공무원과 여성단체협의회,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사회·기관·단체 6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고창 관내 농가 49곳의 일손을 도왔다.

# 고창군,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울력'

### 기관 · 단체 등 600여 명 참여

'한반도 농생명 식품수도' 고창군의 모든 구성원이 밀짚모자와 팔토시로 무장하고 들녘에 나섰다. 땡볕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애썼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농촌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역 내 모든 구성원이 농촌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고창군청 공무원과 여성단체협의회,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사회·기관·단체 6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고창 관내 농가 49곳의 일손을 도왔다.

갓 들어온 신규 직원부터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나이 지긋한 과장들까지 함께 배 솎아주기 작업부터 고추 지주대 작업, 수박 순집기, 인삼밭 꽃 따기, 노지 고구마 식재 작업 등 고창을 대표하는 다양한 작물의 영농작업을 거들었다.

앞서 고창군 농생명지원과는 4월6일부터 농촌인력지원상황실을 꾸려 지역 내 기관과 일손부족 농가를 연결해 주고 있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봉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상승 및 일손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화합과 신뢰를 도모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달 중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손 부족에 힘들어하는 복분자, 오디 재배 농가 등에 군 산하 공무원, 사회기관단체, 군부대 등이 함께 참여해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 청년실직자에 '생생지원금' 지원

###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시간제 인력도 한시적 혜택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사업비 1억을 투입해 청년실직자 30명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생생지원금'은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 등에서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1개월 이상 실직한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더해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도 월 200만원씩(사업자 부담 20%포함) 최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도 지원한다.

지난달 25일부터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별 모집 하고 있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은 오는 14일까지, 청년사업장은 오는 6월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을 통해 신청 하면된다.

고창군청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생생지원금과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토종어류 자원 확충 메기 치어 50만 마리 방류

정읍시가 사라져 가는 토종어류의 자원 확충과 보전을 위해 나섰다.

시는 2일 동진강 수계 주요 지방하천인 정읍천과 칠보천, 원평천에 메기 치어 50만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해 수산인 단체와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최소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방류한 메기 치어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6cm 이상 건강한 종자만을 선별했다.

시 관계자는 "방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생육환경을 잘 보전해야 한다"며 "불법 어업 행위로 인한 보호어종과 어린 물고기가 포획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모두가 관리 감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시는 2일 동진강 수계 주요 지방하천인 정읍천과 칠보천, 원평천에 메기 치어 50만 마리를 방류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공유수면 내 토산 어종 보호를 위한 방류사업을 매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지원한 은어 치어 5만 마리를 정읍시 산내면 추령천에 방류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사업체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지역 내 9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및 팩스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4억5천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수막과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 중이다. 또한, 신태인·연지·샘고을 시장과 소상공인 연합회 등에 전단지를 배포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